



보도자료

배포일시

이 보도자료는 2020년 3월 11일 오후 14시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팀코리아, 베트남 응깃 지하석유비축기지 사업 공동개발협약 체결

- 2억5천만불 규모 베트남 최초 · 최대규모 지하석유비축기지 구축 및 운영사업
- ‘13년 한-베 양국 전략사업으로 시작되어 장기간 지연되어 오던중 공동투자자이자 디벨로퍼인 KIND의 참여로 추진 가속화
- KIND, 한국석유공사, 코람코자산운용, LT삼보간 팀코리아를 구성, PVOS와 공동으로금년 내 착공 추진

-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, 사장 허경구)는 한국석유공사(사장 양수영), 코람코자산운용, LT삼보 등 한국 기업 및 베트남 PVOS와 함께 2020년 3월 6일 베트남 응깃(Dung Quat) 지하 석유비축기지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개발협약(JDA, Joint Development Agreement)을 체결하였다.
- 베트남 국영석유기업 PVN(PetroVietnam)의 자회사 PV OIL, BSR 정유와 국내 컨소시엄의 합작법인인 PVOS(PetroVietnam Oil Stockpile)에 의해 2011년 개발이 시작된 동 사업은, 100만cbm 규모의 베트남 최초 및 최대규모의 지하석유비축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2억 5천만불이다. 동 사업은 베트남의 국가 에너지안보와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핵심 프로젝트로, 2013년 한-베 정상회담 공동성명시 채택 및 2016년 베트남 수상의 사업승인 이후 다양한 대내외 사정으로 본격적인 추진이 지연되어 왔다.
- 2018년 6월 출범한 공공기관인 KIND는 2019년 초 동 사업 정보를 입수, 조속한 사업 재개발안을 검토해온 결과 한국석유공사, 코람코자산운용, PVOS, LT삼보 등과 함께 사업 공동개발 파트너

십을 구성하는데 합의,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본 협약을 통해 각 사에 부여된 역할에 따라 사업개발을 완료한 후 금년 3분기 중 착공을 목표로 한다.

- 한국석유공사는 2012년 PVN과 석유분야 포괄적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동 사업의 개발을 적극 지원해왔다. 한국석유공사는 세계 최대규모의 지하공동기지를 약 40여년간 무사고로 운영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동 사업의 건설기간 중 기술지원 및 준공 후 운영(O&M)을 담당할 예정이다.
 - 코람코자산운용은 2018년 인프라부문을 신설하여 기존의 부동산 중심에서 인프라전문운용사로 영역을 확장하였고, KDB출신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 개발 및 투자 전문인력을 영입하여, 동 사업의 개발과 자금조달 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.
 - LT삼보는 LT 그룹에 속해 있는 토목강점의 종합건설회사로, 우수한 기술력과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싱가포르, 홍콩, 중동 등에서 활발히 해외사업을 영위하고 있다. 동 사업에는 국내 석유화학분야 전문기업인 필즈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EPC, 기술지원 및 지분 투자에 참여할 예정이다.
 - 끝으로 KIND는 한국기업의 해외 인프라 및 도시개발사업 진출을 지원을 위해 2018년 국토부 산하 설립된 이후, 해외 사업개발과 타당성조사 지원에서부터 투자까지 사업의 전단계를 지원하고 있다. KIND는 동 사업의 개발을 지원함과 동시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 예정이다.
- 베트남 응짱 지하석유비축기지 사업은 한국석유공사의 운영 노하우와 KIND의 개발 및 투자역량 등 공공기관의 전문역량 발휘를 통해, 장기간 지연된 사업을 가속화하고 역량있는 우리 중소/중견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 동반진출을 가능케한 케이스로 평가된다. 또한 사업주들의 개발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부 글로벌인프

라벤처펀드(GIVF)의 문도 노크하고 있다. 최근 해외건설시장에서 투자개발형 사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동 사업은 국내 공기업과 민간기업, 금융사가 패키지로 개발도상국 인프라구축에 참여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융복합사업실 박준용 대리(☎ 02-6746-743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